

기타 의류용으로 이용되는 동물섬유

앙고라 토끼털(1)

이제까지 양모를 포함한 여러 가지 두드러지는 동물성 섬유를 소개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개하였던 동물성 섬유 외에도 양모와 혼용함으로써 그 빛이 나는 것이 적지 않으며, 특히 유행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것도 많다.

이러한 동물들로는 사슴, 여우, 개, 고양이, 친칠라(Chinchilla), 담비(Sable, Marten), 족제비(Weasel), 아스트라칸(Astrakhan ; 캐러쿨(Karakul) 산양의 새끼 양), 표범(Leopard), 호랑이, 치타, 살쾡이(Ocelot), 스라소니(Linx), 비버(Beaver), 물개나 바다표범, 수달, 해달, 뉴트리아(Nutria), 너구리(Raccoon), 오소리, 소, 말, 토끼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 중에서도 앙고라 토끼털이 가장 흔히 사용되는 기타 수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소개를 한다.

[앙고라 토끼털(Angora Rabbit Hair)]

앙고라 산양(Angora goat)의 털을 모헤어(Mohair)라고 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앙고라란 앙고라 토끼털(Angora Rabbit Hair)을 말한다. 이 앙고라 토끼털은 고급 의류소재의 하나로 취급한다.

앙고라 토끼털의 유래는 남아프리카 지방에 원생(原生)하는 동물 중에서 Angora Goat, Angora Cat, Angora Monkey 등 털이 긴 동물에는 모두 Angora 란 이름을 붙여 부르던 습관에서 털이 긴 토끼를 Angora 토끼라고 하였다는 이야기다. 이 외에도 터키의 앙카라 지방이 원산지라고 하는 설도 있으나, 좌우간 앙고라 토끼는 원생종이 아니라 개량종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를 원산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앙고라 토끼의 털은 사육하는 장소의 기후나 사료에 따라 다소 달라지지만, 품종은 다음의 세 가지가 원류가 된다고 구분한다.

첫째, 영국계의 로열 앙고라(Royal Angora) 토끼는 다 자란 토끼라 하여도 2.5~3 kg 정도로 작으나, 얼굴이 넓고 둥글다. 얼굴, 귀, 다리에도 모두 털이 나 있다. 털의 품질은 섬도가 대단히 가늘고, 크림프가 많다. 털이 가늘고 부드러워서 펠트(Felt)화 하기 쉬우나, 털 자체의 털이 매끄럽고 스티프니스(Stiffness)가 좋다. 순백의 털의 색상과 붉은 눈은 귀여워서 완상용으로 기르기도 한다.

둘째, 프랑스계의 앙고라 토끼는 외모가 집토끼처럼 털이 짧고 얼굴이 길며 얼굴이나 귀에는 털이 조금 나 있다. 몸은 3~3.5 kg으로 다소 크고 털의 품질도 굵고 거칠다. 그러나 의류 원료로서 효과가 좋은 긴 털은 채모가 쉬워서 경제성이 좋다.

셋째, 캐나다 앙고라 토끼는 위에서 소개한 두 가지 앙고라의 중간 정도의 품종이다. 털의 품질은 로열계와 비슷하고, 몸집은 프랑스계와 비슷하며, 털의 밀생 농도가 크고, 몸이 크기 때문에 털의 채모량이 많다.

그러나 이 근래 갑자기 사육이 많아진 중국 종은 그 원류가 어디인지는 분명치 않으나 몸은 성토로서 평균 2.5 kg 정도로 작고 털의 품질은 굵고 거칠지만, 최근 독일로부터 대량의 종토를 들여다가 개량을 계속하고 있어 모질도 개량되어 가늘고 부드러운 털을 생산하고 있으며, 세계 앙고라 토끼털 공급량의 90 %를 차지하고 있다.

앙고라 토끼털의 특징은 가볍고 따듯하며, 촉감이 좋고 순백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이 표면적인 장점이라면 가볍고 따듯한 특징은 내면적인 특징이다. ♣ (공석봉)



<영국종 앙고라 토끼>



<프랑스종 앙고라 토끼>